메트로 2012년 11월 16일 금요일 www.metroseoul.co.kr

너도나도 눈물겨운 월동준비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문풍지 붙이고 부탄난방기 구입
잠잘때 신고자는 '하우스부츠'도 필수아이템으로 등장

지난 11일 서울 명동 유니클로 매장 앞. 50m가 넘는 줄이 늘어서는 광경이 벌어졌다. 발열내의 '히트텍'을 반값에 판다는 소식에 손님들이 몰려서다. 2시간을 기다려 겨우 매장에 들어가 제품을 계산하기까지도 1시간이 걸렸다. 제품이 동나 마네킹에 입혀 놓은 옷까지 벗겨 사가는 진풍경에 '히트텍 대란'이란 신조어까지 생겼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히트텍 대란'은 실용적인 아이템을 더 싸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절박한 바람이 낳은 결과"라며 "한편으로는 체감경기가 최악의 불경기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레깅스·내의 등 매출 20% 껑충

경기불황에 이른 겨울 추위까지 맞물리면서 '간장족'들의 겨울나기 월동 준비가 눈물겹다. 지갑에서 새는 돈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주부 김순자(50)씨는 얼마 전 집 안에서 신는 '하우스 부츠'를 가족 수대로 구입했다. 김씨는 "신으면 발이 따뜻해 낮에 난방을 하지 않고 있고, 밤에 잘 때도 신어 난방비를 아끼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체온을 유지해주는 기능성 내의나 온수 매트 등 절약형 방한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11번가에 따르면 최근 2주간 기능성 내의, 기모 레깅스, 온수 매트 매출이 지난해보다 20% 가량 뛰었다. 이 회사의 홍보팀 문지형 매니저는 "경기불황을 반영하듯 발열 기능을 갖춘 1만원 대 제품의 반응이 제일 좋다"며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는 온수매트가 최근 히트상품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전기세 인상 검토에 따라 소비자들은 전기 대신 석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난방용품으로 눈을 돌리는 중이다.

롯데하이마트에서는 전기 대신 석유나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난방기기 판매가 지난해보다 2.5배나 늘었다. 롯데하이마트 생활가전 담당 김성훈 바이어는 "전기 난방용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난방 효과를 볼 수 있어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 두세시간 외출땐 보일러 안끄는 게 더 절약

서울 종로에 사는 주부 양선희(40)씨는 며칠 전 동네 마트에서 문풍지를 구입해 창문 틈을 메웠다. 심지어 반투명 김장 비닐로 거우내 잘 쓰지 않는 창문을 아예 막아버렸다. 양씨는 "창틀과 현관문 사이로 새는 열만 잘 막아도 난방비를 최소 10% 이상 줄일 수 있다"며 "비닐로 창을 막으면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중창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난방시설이 낙후됐던 1960~70년대에나 볼 수 있던 광경이 일반 주택까지 퍼지가는 모습이다.

보일러는 잘 사용해야 돈이 굳는다. 보일러 업계에 따르면 2~3시간 정도 외출할 때는 오히려 보일러를 끄지 않아야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 따뜻한 바닥을 유지하는 것보다 차가운 상태의 바닥을 데우는 데 더 많은 시간과 가스비가 들기 때문이다.

보일러업계 한 관계자는 "잠깐 외출할 때는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보다 2~3도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며 "사용하지 않는 방의 보일러 밸브는 잠가야 불필요한 열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아쿠르트 아줌마들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 140톤 한국야쿠르트가 15일 서울광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어 야쿠르트 아줌마를 비롯해 양기락 한국야쿠르트 대표와 가용민 서울시 부시장, 김기옥 서울시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그리고 시민 봉사단 등 2250여명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치를 담갔다. 이날 담근 김치는 140톤 규모로 한국기록원이 인증하는 '한날 한 장소에서 만든 최대 규모의 김장'으로 기록됐다. 김치는 모두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전국 2만5000가구에 전달된다. /한국야쿠르트 제공

여왕의 선택은 갤럭시노트

英 엘리자베스 2세 재위기록 담는 태블릿에 선정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아이패드를 버리고 갤럭시노트 10.1을 선택했다.

15일 미국 IT 전문 업체 씨넷에 따르면 영국 왕실은 애플의 아이패드 등 여러 종류의 태블릿PC를 놓고 검토한 결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위 기록을 담는 소장품으로 갤럭시 노트 10.1을 선정했다.

갤럭시 노트 10.1은 엘리자베스 2세의 디지털 타임캡슐에 들어갈 전망이다. 영상·사진·문서 등 여왕의 지난 60여 년간 재위 기록을 담은 후 왕실 소장품 자격으로 원저성에 보관된다.

영국 왕실은 총 66개국 3만7000명에게 다양한 기록을 수집한 후 왕실 사진 협회장·왕실 도서관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60개의 자료를 선정해 갤럭시 노트 10.1에 담을 예정이다.

최근까지 영국 왕실이 모든 데이터는 약 150GB로 갤럭시 노트 10.1의 64GB로는 전부 저장할 수 없기에 SD카드를 활용해 저장공간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영국 왕실은 다양한 삼성전자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방에는 삼성 TV가 있으며 영국 왕실은 삼성 스마트 TV에 최고 수준의 품질 인증인 '킨 로열 워런트'를 수여하기도 했다.

/박성훈기자 zen@

중도상환수수료 과다 불만 최고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후 만기 전 중도상환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과다'가 30.4%(87건)로 가장 많고, '중도상환수수료 설명부족'이 22.7%(65건), '수수료 부당청구'가 16.4%(47건) 등의 순이었다.

대출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설명을 잘해줘서 이해가 잘 되었다'는 경우는 53.7%(537명)에 불과했다.

반면 응답자의 8.0%(80명)는 '설명도 없었고, 도장만 찍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담보대출 경험자(463명) 72.7%는 대출 거래 시 은행 등 금융사업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은행 등 4개 금융권 66개 금융사업자의 중도상환수수료 실태 조사 결과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액에 수수료율과 잔여기간을 적용해 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상품별 수수료율 평균은 신용대출 1.67%, 부동산담보대출 1.62%, 전세대출 1.42% 등의 순이었는데 인지세 등 대출실질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신용대출 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다.

/김재성기자 kjh@

어떤 연하장을 보낼까 1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중앙우체국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2013년 뱀의 해 계사년을 맞아 뱀·띠주머니·부채 등 다양한 디자인의 우체국 연하장을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소비자만 '바가지'

'갤스3' 서울에선 99만원·뉴욕에선 73만원… 17개 생필품값 훨씬 더 비싸

삼성 갤럭시 S3 세계 2위, 로레알 선크림 2위, 칠레산 와인 4위, 미국산 와인 1위.

우리나라가 세계 18개국 중 17개 생필품의 가격이 상위 5위에 들 정도로 물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도시에서 24개 품목 55개 제품을 대상으로 판매가격을 조사한 국제물가조사 결과를 15일 내놨다. 조사 대상 국가와 도시는 지난해 기준 세계 경제 순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및 FTA 발효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 중 11개 품목 17개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비싸게 팔리고 있다. 삼성 갤럭시 S3는 국내 판매가 99만4400원으로 도쿄 102만8633원 다음으로 비쌌다. 반면 뉴욕에서는 73만6650원으로 서울보다 1.35배 저렴했다.

팬틴 샴푸의 경우 2006년 13위에서 지속적인 국내 가격 인상으로 올해 3위까지 뛰어올랐다. 한 수류 수입업체 관계자의 "저렴한 제품을 싸구려로 인식하는 것 같아 가격을 높게 책정했더니 오히려 매출이 더 늘어난다"는 고백이 현실성 있게 들리는 대목이다.

네슬레스위 분유와 미국산 와인은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으며 리바이스 청바지, 얼리 원두커피, GNC 비타민, 씨밀락 분유, 하이네켄 맥주, 칠레산 와인, 시슬리 선크림, 로레알 샴푸, 퍼실 세제, 갤럭시 노트, 스타벅스 콜롬비아 원두커피 등이 5위 안에 랭크됐다.

소시모 측은 "독점 수입원을 통해 백화점만을 대상으로 유통되면서 가격 경쟁이 저해된다"며 "수입원가 공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윤정기자 eleven@metroseoul.co.kr

너무 싼 휴대폰은 개인정보 유출 미끼 '주의보'

저렴한 휴대전화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나치게 싼 가격에 현혹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가입 신청서를 쓰게 해 개인정보를 몰래 얻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물론 허위 쓴 신청서는 가짜다.

즉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빼가기 위해 가입 신청서를 쓰는 것처럼 하고 실제 단말기는 팔지 않는 수법이다. 문제는 이런 개인정보가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를 노리는 사람들은 주로 인터넷 오픈마켓, 카페, 공동구매 사이트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

스페셜올림픽 홍보하는 원더걸스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에서 원더걸스가 멋진 공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파트 3.3㎡당>

전셋값 600만원 훌쩍

서울 826만원·경기 505만원 등 수도권 고공행진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사상 처음으로 3.3㎡당 600만원을 돌파했다. 전세 비수기에 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리면서 최고점을 경신한 것이다.

15일 부동산114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3.3㎡당 602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26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경기도가 505만원, 인천이 366만원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수도권 전셋값은 2010년 3월 3.3㎡당 50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600만원 선까지 넘어선 것이다.

특히 2009년 2월부터 45개월간 2011년 12월과 2012년 1월 두 달을 제외하고 매달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33.25% 올랐다. 서울이 36.16%, 경기도가 34.60%, 인천이 12.77% 각각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51.3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강동구(47.43%), 서초구(46.79%), 광진구(45.19%), 강서구(38.89%), 마포구(37.90%), 강남구(37.01%) 순이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132㎡ 전세가격은 2009년 2월 5억원에서 최근 10억8500만원으로 117%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는 화성시(80.96%), 하남시(51.68%), 오산시(46.56%), 용인시(45.05%) 등의 오름폭이 컸다.

/김지성기자 lsj@metroseoul.co.kr

"전세 더 오르면 아예 집사겠다" 대기수요 40만가구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아예 내 집을 사겠다는 대기수요가 40만 가구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김덕례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전국 무주택 전세가구는 294만 가구 정도"라며 "이 가운데 부채가 없고 전세 대신 주택을 살 의사가 있는 잠재수요는 32만~43만 가구 정도 된다"고 밝혔다.

잠재수요 가구는 지역별로 무주택 가구 외 전세 내신 주택을 사게 되는 주택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선호가구를 추정하고, 이 중에서 부채가 없는 가구를 최종적으로 골랐다. /김지성기자

김장 천천히 하는게 유리

이달말부터 배추가격 떨어져 4인 20만6000원 예상

김장 계획이 있다면 열흘 뒤에 해야겠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15일 김장 성수품 유통정보를 제공하며 "현재 높은 돈가를 보이는 무·배추 가격이 25일 이후 싸어질 것"이라며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비용은 20만6596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무 가격은 재배면적 감소와 파종 지연이 발생한 지난해에 비해 많이 오른 상태다. 하지만 25일 이후부터는 출하량 증가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김장철이 수요가 증가하는 건고추와 마늘은 올해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가격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쪽파와 생강, 당근은 재배면적 축소와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해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김장 부재료인 젓갈과 소금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굴은 태풍 피해로 매매가가 높게 형성됐다.

공사는 김장철 성수기를 맞이 다음 달 11일까지 김장 성수 품목 11개의 지수와 정보를 홈페이지(www.garak.co.kr)에서 매일 제공하기로 했다. /정윤희기자

코브라의 로켓 발사 15일 경기 포천 영중면 도평리 승진사격장에서 육군항공사령대 9기 열린 가운데 AH-1S(코브라) 공격형 헬기가 로켓 발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화공약품 처리' 중국산 삭스핀 호텔 중식당 유통

원산지를 속이고 화공약품 처리를 해 샥스핀(상어 지느러미)을 비싸게 유통시킨 수입업자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5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홍모(55)씨와 해당 업체를 불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에서 가공한 냉동샥스핀 8만1648kg을 들여와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뒤 국내 특급호텔 중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중국산보다 비싼 홍콩이나 인도네시아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켰다. 또 중국 공장에서 샥스핀에 화공약품 처리 등으로 샥스핀 중량을 5kg가량 늘렸다.

홍씨는 이런 불량 샥스핀 거래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2009년 9월 서울시내 유명호텔 중식당 주방장에게 현금 500만원을 주는 등 22차례에 걸쳐 2894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용규기자

대만 국적 항공사 원동항공 부산~까오슝 전세기 운항

대만 국적 항공사 원동항공이 다음 달 2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부산~까오슝 직항 전세기를 운항한다고 15일 밝혔다.

운항일자는 12월 21일, 25일, 29일과 내년 1월 2일, 6일, 10일, 14일, 18일, 22일 총 9항차로 진행된다.

이번 전세기는 대만 전문 여행사 모닝투어에서 주관하고 부산 경남 지역 골프 전문 업체 고스투어, 우성여행, 현원투어, 울산탑, 창원렌대히나에서 함께 판매에 동참하고 있다.

원동항공은 현재 80% 이상의 로드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 운항 연장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동항공의 GSA 범아항운(주)에서는 전세기 운항 준비와 함께 정규편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까오슝은 동남아 최대의 컨팅 수족관과 세계 최대의 불교 사원인 불광사 등의 관광지가 있고 일출열차(꼬미가지)를 탑승하면서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타이완 남부의 숨겨진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항공사 측은 강조했다.

문의 051)464-8783, 463-0093

17개 희귀난치성 질환 무료 유전자 진단검사

인제대 부산백병원은 오는 20일부터 17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무료 유전자 진단검사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병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경상권 희귀난치성 질환 지역거점병원으로 선정돼 다양한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대상 질환은 판코니 빈혈, 여드름 혼신 협증, 유전 확장성 심근병증, 모세혈관 확장 운동실조 등 17개다.

대상 질환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본원의 진료를 받은 후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받는다. 진료 과정 중 유전자 검사 부분만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 지원사업' 대상 질환의 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051)890-8743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HZ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 겸 편집인 남균호
사회 총괄 김병익
부산지사장 대표 김명훈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658-2100
독자센터 (02)721-9862
2007년 5월 3일 창간 2007. 5. 28 등록번호 서울다 00107

"천연물신약 정책 백지화하라"

영남권 한의사 1000명 집회 "체질 진단없이 증상에만 맞춰 처방시 부작용"

영남권 한의사들이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무효를 선언하고 식약청 해체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5일 오전 9시부터 부산지방식약청 앞에서 '천연물신약 전면 백지화를 위한 영남권 한의사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번 궐기대회는 한의사들이 기존에 써왔던 약재들을 천연물신약(천연물질에서 성분을 추출해 캡슐 등 양약 형태로 만든 것)이라는 이유로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를 백지화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남권 4개 지부(부산, 울산, 경남, 경북) 62개 분회별로 조직된 비대위가 주관하는 이번 집회에는 오전 휴진을 한 한의사 1000여 명이 대거 참여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들이 안전한 한의약 치료를 받기 위해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백지화와 현재의 왜곡된 한의약 관련 법령을 일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경우 한의사들과 같은 체질 진단 없이 증상에만 맞춰 처방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집회가 현행 천연물신약 제도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18일과 24일에도 식약청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김수미기자 ksm@metrobusan.co.kr

고등어 요리왕은 누구? 1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10회 부산국제수산무역EXPO'가 열린 가운데 부스 시어 지원 기념 고등어 요리 경연대회에 참가한 요리사들이 조리를 하고 있다. 국내 최대 수산종합전문박람회인 이번 행사에는 20개국 관련업체 350곳이 참가해 세계 각국의 수산식품을 선보인다. 행사는 17일까지 계속된다. /뉴시스

에어부산 "일본 당일여행 어때요"

후쿠오카 오사카 노선 증편

에어부산이 15일부터 부산~후쿠오카 및 부산~오사카 노선 운항 편수를 매일 1편에서 매일 2편으로 왕복 1편 늘려 운항에 들어갔다.

고객들에게 최적의 스케줄을 제공하기 위해 에어부산은 오전과 오후로 시간대를 나눠 각 1편씩 투입함에 따라 당일 여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스케줄은 ▲부산~후쿠오카 오전 10시 출발, 10시 50분 도착 ▲후쿠오카~부산 오전 11시40분 출발, 12시35분 도착 ▲부산~후쿠오카 오후 6시 출발, 6시50분 도착 ▲후쿠오카~부산 오후 7시40분 출발, 8시 30분 도착으로 운항된다.

또 오사카의 경우 ▲부산~오사카 오전 8시30분 출발, 9시50분 도착 ▲오사카~부산 오전 10시40분 출발, 12시10분 도착 ▲부산~오사카 오후 4시30분 출발, 5시50분 도착 ▲오사카~부산 오후 6시40분 출발, 8시10분 도착하는 일정이다.

특히 이날 김해공항에서는 홍보대사 이대호 선수가 지점장으로 변신해 탑승 수속 업무, 탑승객 환송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한편 이번 증편을 계기로 스케줄 경쟁력을 확보, 일본 노선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게 됐으며 내년에는 부산~도쿄 노선 증편도 계획하고 있다.

시청 녹음광장서 나눔장터

'제77회 시민 참여 나눔장터'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시민참여 나눔장터에서는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도서 교환 판매 등을 비롯, 유아용품, 중고물품과 재활용품 등을 판매 또는 교환한다.

북구 화명동 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우산 양산 무료수리 코너'가 운영되며 (주)동신제지 주관으로 종이책과 폐잡지 교환 행사를 진행한다.

또 부산시 여성회관에서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상담 및 시정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는 시정홍보코너도 함께 운영된다.

나눔장터에 참여하는 단체에는 부스가 지정되며, 참가자는 깔개, 옷걸이 등 판매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각자 준비해야 한다.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은 제공할 수 없다.

갈매기조형등대 준공 부산해양항만청은 15일 오후 3시 부산 기장군 일광면 칠암항 남방파제 끝단에 조성한 갈매기조형등대의 준공식과 점등식을 개최한다. 사진 왼쪽이 갈매기조형등대. /부산해양항만청 제공

우체국 금융서비스 일시중단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은 우체국금융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한 장비 교체 등으로 우체국금융서비스를 새벽 시간대인 17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18일 오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일시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우체국금융은 매년 거래량의 증가로 일부 시스템에 과부하가 우려됐으며,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가 요구됐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노후한 시스템을 최신 고성능의 하드웨어로 전면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우체국금융시스템의 성능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말 새벽 시간에 신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박종석 부산지방우정청장은 "이용 고객은 시스템이 전환되는 17일, 18일 양일 새벽시간에 금융거래가 안 되니 미리미리 현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시 중지되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모바일·폰뱅킹 등 모든 우체국금융 서비스다.

수능 수험생 무료 영화상영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특별 영화상영회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상영회는 입시 준비로 고생한 수험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인권의 소중함과 예술적 감성을 채울 수 있도록 마련된 무료 관람 행사다.

상영작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획한 작품인 ▲청소년 인권문제를 다룬 영화 '달리는 차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우리 안의 편견을 다룬 영화 '바나나 쉐이크' ▲북한에서 온 새터민 문제를 다룬 영화 '어떤 두 개' ▲일반 여성 노동자가 정리해고로 취급돼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던 실화를 다룬 영화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등 4편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www.cm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51)749-9516

실내 공기질 연구 머리 맞댔다

부경대·LG전자 '맑은 공기 연구센터' 본격 가동

실내 공기질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등장했다.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맑은 공기 연구센터(센터장 이명숙 미생물학과 교수·사진)'가 그것.

부경대 용당캠퍼스 한미르관에 입주한 이 연구센터는 15일 LG전자와 공동으로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전문연구를 본격화했다.

이 센터에는 부경대 이명숙 교수를 비롯 김용하 교수(화학공학과), 윤신대 양성봉 교수(화학과)와 정춘수 교수(미생물학과), 일본 도요하시대 미즈노 교수, 캐나다 사스카체완대 백운두 교수 및 LG전자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가 실내 공기질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실내 공기질 전문 연구기관이 국내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맑은 공기 연구센터는 LG전자의 에어컨 신제품 개발 시 미생물 제어, 냄새 및 곰팡이 제거 연구 등 공동 프로젝트 진행과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또 LG전자와 협력해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핵심기술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공동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에어컨, 냉장고, 청수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과 연계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명숙 센터장은 "부경대 A+LINC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LG전자와의 산학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진기자 kam@metrobusan.co.kr

영주한우 반값에 사세요

메가마트 19일까지 행사

메가마트는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1등급 이상 소백산 영주한우 전 부위를 산지 직거래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제2회 메가마트 한우데이' 행사를 15일부터 19일까지 메가마트 전 점포에서 진행하고 있다.

메가마트는 이번 행사를 위해 한우 120마리 분량인 30톤 정도를 내놓았다.

이번 행사에서 1등급 한우 100g을 기준으로 5800원에 판매되던 구이 및 스테이크용 등심 안심, 채끝을 14% 할인된 4980원에 판매하고, 1+ 및 1++ 등급은 30% 할인된 5980원과 6980원에 각각 판매한다.

또 불고기와 국거리용 1등급 한우 설도, 우둔, 앞다리, 목심, 사태살을 100g 기준으로 50% 할인된 1980원, 1+등급은 2380원, 1++등급 한우는 2580원에 판매하고, 구이 및 찜용으로 구매가 많은 1등급 한우 갈비의 경우 100g 기준 기존 가격에서 20% 인하된 49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끓거리용으로 인기가 많은 한우 사골의 경우 100g 기준 30% 할인된 980원, 한우 잡뼈는 40% 인하된 420원, 한우족은 개당 2만3000원이다.

수험생과 말춤추는 대학총장 15일 부산 동명대 신축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진학설명회에 참가한 설동근(가운데) 총장이 고3 수험생들과 어울려 싸이의 말춤을 추고 있다. /뉴시스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대상 윤종빈 감독 '범죄와의 전쟁'

제13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부산영평상) 대상에 윤종빈 감독의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가 선정됐다.

15일 평론가협회는 이번 대상은 밀도 있는 내러티브를 뛰어난 연출력으로 완성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심사위원 특별상은 정재은 감독의 '말하는 건축가', 각본상은 이광국 감독의 '로맨스 조'가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 우수연기상은 '밍크코트'와 '공정사회'에 출연한 '남자'에서 각각 열연한 황정민씨와 이성민씨에게 돌아갔다. 또 '은교'의 김고은과 '이웃사람'의 김성균은 신인연기자상, '밍크코트'의 신아가 이상철은 신인감독상 수상자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한편 시상식은 30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 열린다.

영화 '이웃사람' 감독 배우 23일 지역 관객과의 만남

영화 '이웃사람'의 감독과 배우가 부산 관객과의 만남을 갖는다.

15일 부산영상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7시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에서 영화 '이웃사람' 시사회를 한다. 이어 시사회 후에는 김휘 감독과 배우 김성균이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부산영상위원회는 이번 행사에 참여할 시민을 18일까지 인터넷(www.bfc.or.kr)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무료.

진로박람회 강서체육공원서

부산교육연구정보원은 16일 부산강서체육공원서 부산진로유신에 대한 현장체험 및 진로 진학상담 등에 직접 참여하고 느끼고 꿈을 찾아가는 '부산진로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진로교육을 강조, 단위학교별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내년까지 중·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자기주도적 진로 의사결정 능력 신장으로 학생 개인별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중국의 신임 시진핑 국가주석 완쪽 과 리커창 총리가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내외신 기자 회견장 단상에 서서 나란히 손을 흔들고 있다 /AP 뉴시스

‘실세’ 시진핑

당 총서기-중앙군사위 주석 동시 이양

중국 시진핑(習近平)이 15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당 총서기직과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함께 이양받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를 열어 시진핑을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시진핑은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장악하고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10년 전인 2002년 16기 1중전회에서 후진타오는 장쩌민(江澤民)으로부터 당 총서기 자리만 넘겨받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관례가 깨졌다 시진핑은 내년 3월로 예상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 자리도 물려받아 당·정·군 권력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베이징 정가에서는 후진타오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이날 새로운 상무위원 체제를 확정했다 상무위원단에는 국가주석과 총리로 확정된 시진핑과 리커창 이외에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위정성(兪正聲)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류윈산(劉雲山) 국가부주석 장가오리(張高麗) 상무부총리,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 서기가 이름을 올렸다

/조선미기자 seonn @metroseoul.co.kr

“범죄피해 당했다”

서울서 혼자 살아본 여성 10명 중 1명꼴

혼자 사는 서울 여성 10명 중 1명은 범죄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단독거주 경험이 있는 20~40대 여성 357명 중 45명(12.6%)이 신체 위협 등의 범죄 피해를 경험했다

범죄 피해 장소로 건물 주변(38%) 건물 내부(29.3%) 집안(19.5%) 등이 꼽혀 건물 내·외부에 안전조치가 필요했다

대처 행동으로는 경찰 또는 경비실에 연락한 사례가 29.9%로 가장 많았다 이사를 가거나 개인방범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각각 19.4%였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응답자는 13.4%에 달해 안전강화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 시급했다

◆"CCTV 가로등 추가 설치해야"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범죄 방지 방법으로 외부인의 출입통제(36.5%)와 주택 주변의 밝은 환경 조성(33.1%)을 꼽았다

유로존 23개국 긴축반대 시위 14일(현지시간)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린 긴축재정 반대 시위에 참가한 여성을 경찰이 발로 걷어 차고 있다 유럽노조총연맹(ETUC)이 정한 '유럽인 행동과 연대의 날'을 맞아 이날 그리스·스페인 등 유럽 23개국에서 각국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AP 뉴시스

이를 위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폐쇄회로(CCTV)와 가로등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를 수행한 이안과 도시건축사무소 대표는 보고서를 통해 "여성의 삶이 주거 환경과 매우 밀접함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안전한 여성단독가구 조성을 위해 외부인 출입통제와 밝은 조도 확보를 설계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여성가족재단 측은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1%에서 2010년 23.9%로 폭발적으로 늘었다"면서 "증가하는 1인 여성 가구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은 열악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16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초동 대한건축사회관에서 열린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재정절벽 해법은 부자증세!

오바마 재선 뒤 첫 기자회견서 공화당 압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10년간 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1조6000억 달러(약 1740조원)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장 내년 초로 임박한 '재정 절벽'을 타개하려는 조치지만 미 공화당이 고려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처방책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팽팽한 대치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자리 세금 재정 적자와 관련해 연말까지는 시한으로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6일 의회 지도부를 만나 상위 2%,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부유층을 상대로 한 '부시 감세' 조치를 끝내고 기업의 각종 탈세를 막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세율을 높여 10년간 1조6000억달러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뜻이다 /조선미기자

고기맛이 살아있는
신제품이 온다!

가을앤팩 또는 핫크리스피버거세트 구매시

신제품 버거 1+1 쿠폰 1매를 드립니다.

쿠폰사용기간 : 2012. 11. 22 ~ 12. 31

가을&팩

~~10,900~~ → ₩8,000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Peru

8 trabajos mas raros del mundo

metro Chile

Caso Longuén: buscarán aumentar penas a conductores

교통사고로 3명이나 죽였는데 석방?

칠레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및 과속으로 3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가석방돼 적잖이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사고피해자협회의 페드로 레이바 회장은 "칠레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여도 전과가 없으면 100% 풀려난다"고 말했다. 레이바 회장은 이어 "청소년에서 이 같은 사건에 대해 면허 정지 및 3년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6개월 근신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etro France

Seuls au monde

남극 돌아오는 '죽음의 요트대회' 출발

무려 3개월에 걸쳐 펼쳐지는 요트 세계일주 대회가 열린다. 메트로 프랑스는 프랑스의 레 사블 돌론을 출발해 중간 기착 없이 남극을 돌아오는 '방데 글로브' 개막 소식을 8일(현지시간) 전했다. '방데 글로브' 참가자들은 3개월 동안 무려 4만5000km를 항해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는 20명의 바다 사나이들이 도전했다. 이 대회는 여정이 긴 만큼 사고도 잦아 1996년에는 선수 한 명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실종되기도 했다.

뱀 사냥용 미끼 된 사람들

동물정액 채취·범죄현장 청소·물속 골프공 수거 등 상상초월 이색직업 수두룩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희귀한 직업들이 있다. 12일(현지시간) 메트로 페루 리마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등장한 전 세계 이색 직업을 소개했다.

◆동물 정액 채취인=북아메리카와 유럽 지역에는 동물의 정액 채취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 우수한 혈통을 가진 수컷의 정액을 채취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기계나 손으로 동물을 자극해 정액을 채취한다.

◆사슴 소변 채취인=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사슴 사냥은 보편적이다. 사슴 소변 채취인은 사슴의 소변을 채취하고 미신 뒤 사냥감의 주의를 끈다.

◆골프공 잠수부=모든 골프 선수들이 다 타이거 우즈처럼 완벽한 샷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공을 연못에 빠뜨리기 십상이다. 연못 바닥에 빠진 공을 찾아서 되파는 '골프공 잠수부' 들에겐 어둡아 더할 수 없어 반갑다.

◆뱀 사냥을 위한 인간 미끼=뱀 사냥꾼은 남미 몇몇 국가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이다. 그러나 사실 뱀을 잡는 것은 쉽지 않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다리 전체에 붕대를 감아 뱀의 미끼로 나선다. '인간 미끼'로 나선 사람을 뱀이 공격하면 다른 사냥꾼들이 동료를 즉시 잡아당기며 뱀을 잡는다.

◆배수관 청소부=인도처럼 배수관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들이 있다. 이런 나라에서 배수관 청소부는 모든 작업을 손으로 해야 한다. 양동이를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막힌 오물들을 손으로 퍼내는 게 기본이다.

◆범죄 현장 청소반=범죄 현장을 청소하는 기업도 있다. 소름 끼치고 섬뜩한 직업이지만 수입은 꽤 짭짤하다.

◆말라리아 모기 연구 과학자=브라질에서 말라리아 치료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실험실 쥐 와 비슷한 처지다. 이들은 치료제를 연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모기에게 기꺼이 '헌납' 하고 있다.

/정리=조선미 기자

metro Russia

Новую руку можно купить за 600 тысяч

로봇팔 덕분에 요리까지 척척

러시아인 4명 '새 삶'

SF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팔이 러시아에도 등장했다. 에미 팔에 장애를 가진 4명의 러시아인이 로봇팔 덕분에 예전처럼 일은 물론 요리를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12일(현지시간) 메트로 모스크바에 따르면 1992년 영국인 마이크 스웨인거는 기차에 치이는 대형 사고로 오른팔과 오른발을 잃었다. 엔지니어 나이젤 애클랜드 역시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최첨단 생체 의수 덕분에 예전처럼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요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로봇 팔다리에 관한 아이디어는 이미 1960년대에 판타지 소설을 통해 등장했지만 현실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가벼우면서 잘 부러지지 않는 소재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의 의료 보조기구 개발업체 RSL스티퍼 사가 선보인 '비바이오닉3'는 이런 고민을 한번에 해결했다. 14개의 근육 움직임을 감지해 마치 진짜 팔처럼 미세한 움직임도 가능하다.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다. RSL스티퍼 관계자는 "의수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미적 측면도 고려됐다"며 "60만 루블(약 2000만원)이면 스웨인거나 애클랜드와 같이 손발을 잃은 환자들은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리=이국명 기자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30표 차이로 시장선거 당락 번복
- 오리고기 업체에 빼앗긴 억이름
- 공룡옷 입고 기어가기 대회 우승

Nikkei (일본)
8829.72 (+164.99)
Hang Seng (홍콩)
21108.93 (-333.06)
Shanghai (중국)
2030.29 (-25.13)
Dow Jones (미국)
12570.95 (-185.23)

EXCHANGE RATE

달러	1087.00
엔(100)	1345.30
유로	1385.49
위안	174.55

‘부실감사’ 소송 급증

최근 4년 회계사 등록취소 등 제재 186건 … 전체 실시건수의 25%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감사인 대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감리 조치로 인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회계법인 등이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부실감사를 한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밝힌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관련 제재 및 소송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감사인 등에 대한 제재 조치가 급증했다.

최근 4년간 부실감사 등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건수는 186건(감사인 28사, 공인회계사 362명)이었다. 전체 감리 실시 건수(741건)의 25.1%를 차지했다.

또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게 등록 취소 또는 업무·직무 정지 등 중조치를 부과하는 비중도 늘어났다.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비율은 47.3%로 2009년의 13.9%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중조치 건수는 73건(감사인 84사, 공인회계사 176명)으로 전체 감리실시 건수의 9.9%이며, 올해에는 중조치 비율이 22%로 대폭 상승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최근 4년간 조치한 186건 중 176건이 감사 절차 소홀이었다. 금융상품 관련 감사 절차 소홀(65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독립성 등 기타 위반은 10건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8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총 57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9월 말 기준)이다. 소송가액만 총 2545억원으로 1건당 평균 45억원이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많았다. 저축은행 관련 소송은 25건(소송가액 1480억원)이었다. 이외의 소송은 32건(소송가액 1065억원)이었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감독국 팀장은 "감사인 등은 감사 절차 소홀로 야기될 제재 및 소송 등 감사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감사 업무를 철저히하는 등 감사 업무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MS '수퍼 위크' … 윈도8 디바이스 할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대치동 전문매장인 컨시어지와 윈도8을 홍보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2012 윈터 수퍼 위크' 행사를 14~18일 개최하고 윈도8 디바이스를 할인 판매한다. 행사기간 동안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한정판 세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공

삼성 스마트폰 ‘애플 2배’ 팔려

3분기에만 5500만대 … 세계 점유율 32% ‘1위’

'SAMSUNG' 로고가 박힌 휴대전화가 '사과' 그림이 들어간 휴대전화보다 2배나 많이 팔렸다. 삼성전자는 전체 휴대전화 판매량은 물론 스마트폰 판매량에서도 1위를 석권했다.

15일(한국시간)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스마트폰 판매 대수가 5500만대에 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2.5%를 기록하면서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애플은 삼성의 절반 수준인 14%에 그쳤다. 지난해 동기보다 36.2% 증가한 2360만 대를 판매했지만 점유율 면에서는 삼성에 크게 뒤처졌다.

판매량에서도 갤럭시S3는 1800만 대, 아이폰4S는 1620만 대를 기록했다. 갤럭시S3는 전분기 540만 대에서 230%나 판매량이 늘었다. 시장 점유율도 10.7%로 전분기(3.5%) 대비 7.2%포인트 올랐다.

'지는 해' 노키아는 720만 대를 판매해 점유율이 4.2%에 그쳤다. 이에 비해 리서치 인 모션(RIM)은 890만 대를 판매해 점유율 5.2%로 노키아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스마트폰이 지난해 동기보다 46.9%가 증가한 1억6920만 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전체 휴대전화 시장에서도 점유율 22.9%를 기록하며 노키아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도 애플의 점유율은 낮아지는 반면 구글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힘 센 남자같은 '뉴 아우디 Q5'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우디센터에서 '뉴 아우디 Q5'가 공개되고 있다. 뉴 아우디 Q5 3.0 TDI는 3000cc 터보 직분사 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245마력, 최대 토크 58.2kg·m, 0~100km/h 6.5초, 최고 시속 225km/h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며 복합 연비 11.9km/l를 달성했다. /뉴시스

자산운용사 영업이익 상반기 2년연속 하락

저금리와 주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돈을 굴리지 못하는 자산운용사들이 맥을 못 추고 있다. 2년 연속 영업이익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82개 자산운용사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4~9월)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2562억원)보다 202억원(7.9%) 감소한 232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주식형펀드의 규모가 줄어들어 운용보수(수수료 수입)가 줄었기 때문이다. /김지성기자

확 떨어진 수출입 물가

환율·유가 하락 영향 2년여만에 최대 낙폭

수출물가가 2년6개월래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수입물가도 2년11개월래 낙폭 최대를 기록했다.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출물가는 1년 전보다 5.2% 하락하면서 2010년 4월(-6.7%) 이후 2년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는 1.9% 하락하면서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지난 9월 평균 1124.8원에서 10월 1106.9원으로 1.6% 절상되면서 수출 물가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3.3% 낙폭을 기록하면서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4% 하락해 2009년11월(-7.5%)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수입물가 역시 환율 하락에 유가 하락이 더해지면서 낙폭을 키웠다.

일정한 시간을 두고 국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수입 물가가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성기자

"사과할테니 화 푸세요" "이대로면 대선 집니다"

문, 두차례 전화에도 안 '냉랭'… 단일화 협상 이틀째 스톱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5일 서울 충정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던 도중 기침이 나오자 입을 가리고 있다 /뉴시스

후보 단일화가 잠정 중단된 지 이틀째인 15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직접 나서 사과했으나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문 후보는 이날 부산·창원 등 경남에서 일정을 수행 중인 가운데 단일화 협상 중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며 "내가 (캠프를) 대신해 사과드린다. 이젠 화 푸시고 단일화 협의를 위한 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재차 안 후보를 달랬다.

특히 문 후보는 이날 공개 사과에 앞서 전날 안 후보 측의 단일화 협의 잠정 중단 선언 후 안 후보와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이날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이 전했다.

안 후보 측은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캠프에서 "문 후보님 발언에 대한 것보다 지금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려 송구하지만 이대로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은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내곡동 땅을 산 것도 아니고 특검에서 조사할 문제도 아니지 않느냐"며 "캠프 내부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문 후보) 스스로 확인이 안 돼 있다고 하니 사실 관계 확인부터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안 "단일화는 꼭 성사될 것"

한편 안 후보는 이날 광주MBC와 한 첫 방송 대담에서 "단일화는 꼭 성사하고 후보에 떨어지더라도 정치는 계속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기자 grass100@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15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단일화 협상 잠정 중단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입장을 전하고 있다 /안철수캠프 제공

여 "대국민 관심끌기쇼 그만"

새누리당은 문재인·안철수 야권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 논의 파행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국민의 검증 기회를 위해 단일화 후보를 서둘러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재집권 구도에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예견했다"며 "안 후보가 이제야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 후보 측에서 문제 삼은 인신공격, 협상 내용 흘리기 등은 민주당의 전매 특허"라며 "여론조사만을 통한 단일화로 방식이 확정되면 아 분야 최고 전문가인 친노세력을 당할 재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 "잘 짜여진 대국민 관심 끌기 쇼를 시작한 것"이라며 "협상중지와 갈등, 그리고 후보 간 극적인 만남과 합의, 이게 각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선거라는 것은 돈과 조직인데, 조직이 없는 사람이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기기 어렵다"며 문 후보로의 단일화를 예상했다.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후보를 결정해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촉했다. /채수호기자 slevon@

세종대 산업대학원 오세요

30일까지 신입생 모집

온라인 교육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eMA)에서 디지털정보산업학과, 유통산업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부동산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세종대 산업대학원은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교육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디지털정보산업학과에서는 기업 경영성과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디지털정보기술 이론과 실무를 교육한다. 유통산업학과는 유통산업 전반에 걸친 생생한 실습을 통해 현장형 인재를 길러낸다.

호텔관광경영학과에서는 관광학 및 호텔경영학의 학문적인 이론을 토대로 실무형 전문가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부동산학과는 변화하는 부동산 분야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대 측은 "이들 과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 학위 취득이 가능한 미래형 대학원"이라며 "세종대학교 학술정보원과 편의시설 이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학과별 정기 세미나 및 특강 등으로 인맥을 쌓고 정보를 교류하기도 좋다.

30일 오후 5시까지 세종대 산업대학원(eMA) 홈페이지(www.emba.ac.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3408-3740 /장윤희기자 unique@

18대 대통령은 누구? 18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15일 서울 종로구 인의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외벽에 역대 대통령들의 포스터가 벽화로 새겨져 있다 /뉴시스

덕수궁 앞 농성장 자진철거 유도

2주후 강제철거 할수도

서울시가 덕수궁 대한문 앞 농성촌 철거에 들어간다.

현재 대한문 근처에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의 시위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는 중구와 남대문경찰서가 참석한 가운데 14일 열린 합동 대책회의에서 대한문 앞 농성촌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 권한이 있는 중구는 천막을 설치한 단체에 자진 철거 권고 공문을 발송한다.

공문을 발송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농성장을 설치한 것은 도로라는 공공시설물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성촌 철거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온 박원순 시장은 현재 유럽 출장 중이다. 박 시장은 19일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장윤희기자

"정부, 담배회사 고소를"

흡연자 62% "의료비 부담시켜야" ·· 86%는 "강력한 금연정책 필요"

흡연자 10명 중 8명은 정부의 강력한 금연 정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제담배규제(ITC) 프로젝트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설문조사 결과 흡연자 86%는 정부가 금연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에도 흡연자 40%가 찬성했다.

설문조사 결과 금연의 가장 강력한 요인은 담배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서도 2010년 흡연자 35%는 담뱃값이 부담스러워 자주 또는 매우 자주 금연을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은 2004년 12월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 후 7년 동안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담뱃값을 고정한 결과 흡연율이 2007년 이후 남녀 모두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ITC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담뱃값 때문에 금연을 결심했다는 응답자가 2005년 38%에서 2010년 27%로 줄었으며 한국의 담배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TC 보고서는 또 흡연자 88%가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흡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흡연자 62%는 정부가 담배 관련 업체를 고소해 의료비를 지불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ITC프로젝트는 세계 22개국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 금연 정책 평가 프로젝트다. /김용현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What's Hot

제이에스티나의 이사벨 토트백이 이번 가을 겨울 신제품으로 출시한 오스트리치 엠보의 레드 컬러 제품은 럭러한 컬러와 가죽이 포인트다. 특히 SBS 드라마 다섯손가락의 채시라가 착용해 더욱 유명한 제품. 채시라는 블랙 롱 코트에 같은 컬러 컬러의 팬츠로 단정하고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목에 룬 다른 핑크 컬러의 하프 넥의 블라우스를 매치했다. 여기에 이사벨백을 스타일링해 블랙과 레드의 강렬한 대비로 럭미 느껴지는 카리스마룩을 완성시켰다.

2012 디즈니 온 클래식 10주년 기념 콘서트가 다음 달 28, 29일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디즈니의 초기 명작들로 꼽히는 애니메이션 백설공주, 메리 포핀스, 알라딘을 비롯해 디즈니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라이언킹, 노틀담의 꼽추, 미녀와 야수 등 많은 인기를 누리고 아카데미 주제곡상을 받은 명곡들을 연주하며 관객들을 환상의 세계로 초대한다.

문의: 02) 541-3182

훈재교육은 초등 전 과목 자기주도 월간 학습지인 '월간우등생학습'을 16일 오전 9시20분 CJ홈쇼핑을 통해 판매한다. 월간우등생학습은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등 전 과목 자기주도 월간 학습지로 초등학생의 학습 속도에 맞게 기출된 학습 계획에 따라 예습과 복습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들일 수 있다. 특히 이번에 판매되는 2013년 월간우등생학습은 자기주도학습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월간우등생학습 11만5000원, 월간우등생학습+잡지 17만4000원.

권오중과 함께 '서울사이버대 설명회'

24일 내년 신·편입생 대상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4일 2013학년도 신·편입생 지원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권오중과 함께 하는 서울사이버대 입시설명회 및 오픈 캠퍼스 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이버대학 선택을 고민하는 지원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을 통해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는 학교 소개 및 입학·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최첨단 시설과 콘텐츠 제작 현장 견학, 사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개인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전공교수와의 일대일 맞춤 진학 상담과 상담심리센터 견학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사이버대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서울사이버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사이버대 진학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눈에 끌리는 '라쿤 항공점퍼'

컬러감·보온성·세련미 '굿'

TBJ가 슬림하고 가볍지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아우터 '라쿤 항공점퍼'를 출시했다.

유니크함이 돋보이는 컬러감으로 남녀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스타일로 출시돼 '라쿤 항공 점퍼'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이목을 끌 수 있는 핫한 아이템이다.

가벼우면서도 우수한 복원력을 가진 웰론 필로스 소재를 사용해 마치 아무것도 입지 않은 듯 가볍고 뛰어난 보온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 또한 후드의 라쿤털이 세련되고 감각적일 뿐만 아니라 보온성을 더했다. 가격은 18만9000원.

오프로드 30만원 구매땐 생존 캠핑가이드북 증정

블랙야크의 하이테크 스타일리시 캠핑웨어 오프로드가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캠핑의 핫 아이템을 가져라!' '생존의 잇백을 획득하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3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생존 캠핑 가이드북을 증정하고 신규 가입 고객과 전 구매 고객에게는 '재난 구조 휘슬'을 증정한다.

두 아이템 모두 먹을 수 있는 식용 종이와 천연 잉크로 제작돼 캠핑 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리얼 가이드북이다. 또한 생존 캠핑 가이드북은 예기치 못하게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활용 가능한 혹한기 체온 유지 등 현장에서 사용하는 매듭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돼 있다. 재난 구조 휘슬에는 해류 구조, 선박 구조 신고 번호가 적혀 있어 조난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산 덕 다운 보온성 탁월

포니 신제품 '코니' 출시

아메리칸 스포츠 클래식 브랜드 포니(PONY)에서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제작한 다운점퍼 '코니(CONEY)'를 출시했다.

코니는 700필파워의 최고급 프랑스산 덕 다운(DUCK DOWN)을 사용해 뛰어난 보온성과 복원력은 물론 경량성까지 겸비한 우수한 품질의 다운점퍼다. 충전 재의 쏠림을 막는 퀼팅 디테일로 덕 쏠림 방지는 물론 후드 탈부착이 가능해 날씨·상황에 맞게 연출할 수 있다.

오렌지, 블루, 퍼플 네이비 등 4가지 컬러로 구성됐으며 어깨의 컬러 절개와 배색 포인트로 심플한 디자인과 감각적인 컬러감이 돋보인다. 가격은 25만9000원.

한편 25일까지 전국 포니 및 스프리스 매장에서 신제품 다운 점퍼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폴라플리스 지갑을 증정한다.

이탈리아스타일 남성백

국민제 온라인 쇼핑몰 제로라운지(zerolounge.co.kr)에서 이탈리아의 핫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개한다.

팜포나토 라이 브리프케이스는 컬러를 여러 번 덧칠하는 가죽 공법으로 만든 팜포나토 기법을 사용해 자연스러운 외관과 색상이 매력적인 브리프케이스이다. 주로 고급가방에 사용되는 기법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조된다. 특히 가죽 내구성이 좋고 시간이 지날수록 색상과 형태가 자연스러워져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디폴레티 구두'는 둥그런 모양의 앞코가 이탈리아 특유의 날렵함을 주는 라운드 토 스타일로 클래식함이 돋보인다.

설화 '해님 달님' 잔혹소리극 변신

23~29일 팩토리홀 공연

판소리공작 바닥소리는 23~29일 창작 소리극 '해님 달님'을 스테이지 팩토리홀 무대에 올린다.

극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로 우리에게 익숙한 설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바닥소리의 의해 시대의 고통을 담은 이야기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떡만 주면 사라지겠다고 거짓말과 협박을 일삼는 호랑이와 줄이네 기획들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구슬프게 전통적인 우리 가락 장단에 맞춰 무대에 올려질 예정이다.

한편 판소리공작 바닥소리는 변방에서 고통받는 삶의 이야기들을 세상 한가운데로 끌어와 위로하고 되새기자는 출발 방향을 가진 단체다. 이번 작품을 통해 불의한 구조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소리판을 꾸민다.

What's Cool

우정사업본부는 14일 오전 포스트타워(서울중앙우체국) 행사 홀에 우리나라 근대 우편의 창시자 홍영식 동상을 건립하고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 이승재 서울지방우정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했다. 사진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

롯데칠성음료가 니어워터 '2% 부족할 때'의 새로운 슬로건을 만들고 30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를 한다. 참여 방법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고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7자의 말과 그 이유를 입력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2% 부족할 때' 550ml 제품 1박스씩 증정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롯데칠성음료 모바일 브랜드 사이트(m.lottechilsung.co.kr)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LG전자가 스마트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한 냉장고 신제품 '스마트 디오스 V9100'(모델명: R-U913SBRD)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스마트 스캐닝' '헬스 매니저' 등 최첨단 스마트 기능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냉장고다. '스마트 스캐닝'은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G스마트 냉장고'로 영수증을 찍으면 구입 식품 목록을 자동 인식, 냉장고에 저장된 식품 보관 목록으로 전송하는 기능이다. '헬스 매니저'는 사용자가 개인별 나이·키·몸무게 등 기본정보와 고혈압, 당뇨 등 특이사항을 입력하면 필요한 건강 식단 및 조리법까지 맞춤 제안해준다.

세계 최대의 항공 특송 회사 페덱스(FedEx)는 전국 주요 지역 고객들이 해외로 급송하는 제품의 당일 발송 접수 마감 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연장한다.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서울의 경우 기존 오후 5시에서 한 시간이 연장된 오후 6시, 수도권을 포함한 서울 외 지역은 30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물품 접수 마감 시간이 연장된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페덱스의 주요 국제 특송 서비스인 IP(International Priority) 및 IE(International Economy)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metro entertainment

'자칼이 온다' 주연배우 송지효

15일 개봉된 '자칼이 온다'에서 한류스타를 납치하는 '허당 킬러'로 열연한 송지효(31)는 "내게 원톱은 어전히 버겁다"고 고백했다. "영화를 혼자 끌고 가기엔 연기력이 부족해서"라는데, 막상 스크린에서 마주하는 그는 온갖 북 치고 장구 치는 수준으로 종횡무진한다. 결혼을 가장한 '허이심심'이 어떤지 궁금해진다.

Star bag

윤진서 씨엔블루 소속사 둥지

배우 윤진서가 보이밴드 씨엔블루·FT 아일랜드와 한솥밥을 먹는다.

FNC엔터테인먼트는 15일 윤진서와의 전속계약 사실을 알리면서 "실력파 뮤지션과 연기파 배우를 두루 보유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진서는 다음 달 6일 영화 '영화관'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또 다른 주연작 '그녀가 부른다'는 내년 3월 개봉 예정이다.

에이젝스 소시 '런데빌 런' 답가

남성그룹 에이젝스가 소녀시대의 히트곡 '런 데빌 런'의 답가인 '투 미'(에이젝스로 활동한다.

15일 발표한 '투 미'(에이젝스)는 미국 팝 그룹 백스트리트 보이즈와 엔싱크의 곡을 작곡한 커일 잉스트롬이 만든 것으로 '런 데빌 런'의 작곡가로도 알려졌다. 두 곡은 음악적 공통성을 지녔고 가사도 '런 데빌 런' 속 '데빌'이 부르는 답가로 꾸며졌다.

김제동 연대서 토크콘서트

방송인 김제동이 다음 달 8~16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 4'를 시작한다.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인천·부산·청주 등지로 투어를 이어간다. '노브레이크'는 2009년 첫선을 보인 이래 시즌 3까지 전회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16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

김재중 영화 '자칼' OST 작사

JYJ 김재중이 스크린 데뷔작에서 OST를 작사했다.

15일 개봉한 영화 '자칼이 온다'에서 그는 엔딩곡으로 쓰인 '스테이'의 노랫말을 썼다. 김준석 음악감독이 작곡한 곡으로 김재중은 가사와 가창을 맡았다. 또 영화 중간에 부르는 '나만의 위로'와 '키스미'도 작사·작곡했다.

"원톱 OK 했다가 KO될 뻔"

– 이전까진 주로 리액션 위주의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맞아요. 조인성씨와 주진모 선배 사이에 끼어 있던 '쌍화점' 때도 그랬지만, 주로 소극적인 인물 전문이었어요. 그러나 '자칼…'은 달랐죠. 상대역 김재중씨를 제가 리드해야 하는 처지였죠. 처음 출연을 제의받았을 때는 (원톱의) 책임감을 느껴보고 싶어 선뜻 수락했는데, 시나리오를 읽어보면 볼수록 힘들더군요. 살짝 후회했습니다. 히히히.

– 이번 작품이 스크린 데뷔작이나 다름없었던 상대 배우와의 호흡은 좋았나요?

오히려 제가 재중씨에게 배우는 점이 많았어요. 연기에 임하는 열정이나 감정의 폭을 지켜보면서, 같은 소속사(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 실은 깜짝 놀랐답니다. (JYJ의 박)유천씨나 (김)준수씨도 그렇지만, 그 친구들은 타고난 유전자 자체가 저의 또래와 다른 것 같아요. 어찌나 재주들이 많은지….

– 영화 내내 재중씨를 괴롭힙니다. JYJ 팬들의 원성이 두렵지는 않은지요. (웃음)

한류스타 납치 '허당킬러' 열연
"재중씨 다재다능한 끼 타고난 듯
예능출연 연기 도움… 난 의리녀"

러브 라인이 없어 별 걱정은 안 해요. 저보다는 재중씨와 진한 키스신을 나누는 극중 소속사 대표 역의 김성령 선배가 걱정이죠. (웃음) 두 분의 키스신 촬영을 일부러(?) 쭉 지켜봤는데, 리허설을 굉장히 꼼꼼히 하시더라고요. 촬영도 분위기 좋게 앵글을 자주 바꿔가며 테이크를 여러 번 가고요. 그쯤으로 모든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웃음)

–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미지 소모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요.

음…. ('런닝맨'의) 제작진과는 오래전 '연기대상' 때부터 인연을 맺은 사이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불렀을 때는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제 유일한 장점이 의리인데 (웃음) 의리를 버리기 싫었고요. '런닝맨'에서 익힌 순발력과 호흡이 연기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므로, 영화나 드라마처럼 작품이라 생각하고 별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출연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런닝맨'으로 CF 수입도 쏠쏠해 떠나면 아쉬울 듯싶어요. 히히히.

– 내년이면 어느덧 우리 나이로 30대 초중반이 되죠. 결혼 생각이 솔솔 들 법합니다. (그는 현재 소속사 대표와 연인 사이다.)

1~2년 전부터 일과 가정 생활을 훌륭하게 병행하는 몇몇 주위 분들을 보면서 '아, 나도 결혼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란 생각이 조금씩 들긴 해요. 하지만 지금의 제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 당장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당분간 결혼 발표는 없을 겁니다.

– 내년 계획이 궁금합니다.

최민식·이성재·황정민 선배와 공연한 '신세계'가 내년 초 개봉해요. 캐릭터는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쟁쟁한 세 분을 이어주는 역할이라 무척 기대됩니다. '런닝맨'이 있기 때문에 작기 작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고르려 해요. 계속 뛰어다니려면 성급해선 안 되거든요. 하하하.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사진/한제훈(라운드테이블) 디자인/양성희

2012 사랑나눔

1부 2AM
2부 비스트

다이나믹듀오
용감한녀석들
노라조

일시 : 12.15(토). 15/19시(2회 공연) 장소 :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

출연 : 1부 15시 – 2AM, 다이나믹 듀오, 용감한 녀석들, 노라조
2부 19시 – 비스트, 다이나믹 듀오, 용감한 녀석들, 노라조

공연티켓 : R석–77,000원, S석–66,000원, A석–55,000원
예매처 : 인터파크(1544-1555), 부산지역 각 청병

공연문의 : 051)-600-8813

주최 : 주관 : TAJOY

수익금 전액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기부됩니다.

예술의 시간과 일상을 곱씹다

다양한 장르 아티스트 55개팀 기획전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55팀이 시간을 주제로 6주간 매일 퍼포먼스를 펼치는 독특한 전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문화역서울 284에서 '기획전2-플레이타임'을 무료로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장르 간 융합과 예술의 시간성에 주목하는 퍼포먼스 프로젝트다. 미술·음악·무용·연극·영상·문학·디자인·건축 등 여러 장르의 예술가 55팀이 참여한다.

문화역서울 284 예술감독인 김성원, 독립큐레이터인 김해주와 김현진, 안은미컴퍼니 예술감독 안은미, 아트 스페이스 풀 대표 김희진 등 다섯 명의 기획자가 다섯 개의 섹션으로 기획했다.

섹션 중 김성원의 '리허설'은 실험과 과정의 시간을 통해 미완성·불안정·실수라는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한다. 김희진의 '하기연습'은 개인의 자발적 동기와 의욕을 복원하려는 바인드 컨트롤 행동을 대상으로 했다.

안은미의 '플레이타임 아트스쿨', 김현진의 '에피스테메의 대기실', 김해주가 기획한 '모래극장' 등도 선보여진다.

부대행사로 기억·몸짓·사랑이라는 3가지 키워드로 구성된 '노변 토크 2012'가 진행된다. 인문학자 민승기·심서광, 정신분석학자 맹정현, 여성주의인문학자 김영옥, 이미지비평가 이영준 등이 강연한다.

김성원씨는 15일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미술이 공간과 오브제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현대 미술은 시간에 관심을 가진다"면서 "예술의 시간은 어떻게 일상과 다르며 이와 연계해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이번 프로젝트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영기자 yck0427@metroseoul.co.kr

'플레이타임 아트스쿨'의 고충균

또디 by 정연식

<535> 당신의 빈자리

wind8686@naver.com

"마돈나·싸이 합동공연 놀라워라"

싸이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13일 메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마돈나 콘서트에 깜짝 등장했다. 마돈나의 '기브 잇 투 미(Give it to me)'라는 곡과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리믹스한 곡으로 합동공연을 펼쳤다.

싸이의 이번 무대는 한국 관계자도 모를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됐다고 한다. 콘서트장에 모인 2만여 명의 관객들도 싸이가 마돈나 콘서트에 등장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날 마돈나와 싸이는 커플 말춤과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관객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요즘 싸이가 워낙 노는 물이 다르다 보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장면들이 속출한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로 시작해, 전 세계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을 일으킨 사이먼 코웰 등 팝계·방송계·영화계·IT산업계의 갈란왕들과 만나고 있다.

마돈나가 누구인가? 지금은 레이디가가 등에게 자리를 내준 감이 있지만 세계적인 이슈 메이커로 남성들의 로망이자 여성들의 롤모델인 살아있는 전설급 가수 아닌가. 그런 그녀와 파격 무대를 벌이다니 놀랍다. /홍경민기자

마돈나와 합동공연이라니. 8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나에게는 초현실적인 사건이구만.

빌보드 2위보다 더 큰 감지 않았을까. 마돈나와 함께 공연이라니.

어제밤 본 뉴스 중 갑이다. 진짜 월드스타로 인정.

이게 대체 무슨 일어란 말인가.

와. 진짜 마돈나까지. 마이를 작은 실어있었으면 마이를 작손하고도 공연했을 거예.

/정리=정원영기자 hkim@

날씨

11/16 金 | 일출시각 07:13 | 일몰시각 17:21

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지역	기온
서울	5/15
청주	5/16
대전	6/17
전주	8/16
광주	8/18
제주	12/17
강릉	8/15
울릉도	10/14
대구	8/17
포항	8/17
울산	8/17
부산	10/17

선조한 환절기에는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에는 욕실에서 곧바로 온몸에 보습제를 발라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천식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식중독가능지수 / 동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건국대학교 서울병원 (www.kuh.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9		
			7	6		1		
4	2	7				3		
8			9		1		6	
	9						7	
	4		2		3			1
		8				4	3	5
		2		3	9			
		4	5					

		3					5	7
5		6			9	4		
		8		5				
			4	1		3		
1			7		5			4
		2		3	6			
				2		6		
		7	1			9		8
6	2					5		

스도쿠 정답

시대가 변해도 되풀이되는 '속도전'

권기봉의 도시산책

지난 2009년이었다. 광화문 중건공사 현장에서 옛 석재를 내리고 새 석재로 석축을 쌓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문화재를 중건할 때는 부재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그것이 돌이 됐든 나무가 됐든 으레 옛것 그대로 쓰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이유를 들어 보니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듯했다.

지난 1968년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광화문을 중건할 때 문루를 나무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뒤에 마치 단청을 입힌 듯 페인트칠을 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석축도 그랬다는 점이다. 겉만 화강석일 뿐 그 속을 뜯어보니 온통 콘크리트로 가득 차 있었다.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불을 먹어 푸석푸석해지거나 어예 모서리가 떨어져 나간 석재가 많았는데, 중건 당시 값도 싸고 공사 기간도 짧은 콘크리트로 채워 넣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제보를 한 시민의 눈에는 옛 석재 대신 일부러 새 석재로 갈아 끼우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다만 그 때의 졸속 중건이 그로부터 4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듯해 걱정이다. 지난 2010년 8월 15일 열린 광화문 현판 제막식 이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판액에 세로로 금이 쩍쩍 가버렸고, 올 여름 장마 때에는 석축 내부에 채워넣은 황토가 밖으로 새어나오기도 했다. 곳곳에서 부재 터짐 현상이 발견된 것은 물론이었다. G20 정상회의와 경술국치 100주년 행사 등 정치적인 행사를 이유로 공사 일정을 두 차례에 걸쳐 아홉 달이나 앞당기는 바람에 벌어진 성급함의 결과라는 지적이 많았다.

걱정되는 것이 비단 광화문만은 아니다. 올 연말을 목표로 한창 마무리 공사 중인 숭례문(사진)은 과연 온전히 지어지고 있는 것일까? 수십 년이 흘러도 독유의 '속도전 문화'는 변한 것이 없는 듯해 우려스럽기만 하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하는일마다 꼬여 재물복 없나 부동산 자격증 취득으로 돌파

사대천왕 남자 88년 7월 21일 음력

Q 저게는 재물복이 없는지 하는 일마다 꼬이네요. 그리고 부동산 쪽 일을 하고 싶은데 괜찮은지요. 지금은 박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A 귀하는 사주에 별상(星)의 운기와 쇠(釗)자에 있습니다. 쇠라 함은 신중함, 보수적 논법을 상징하여 성격은 온순하여 담백하나 의지가 약하여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권내력이 부족하여 용두사미가 되기 쉽고 흥정심이 강합니다. 남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으니 안정계 글러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특히 재정보증을 서서 파산할 수 있으니 늘 도장 찍는 일은 조심해야 하니 먼저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하십시오. 2014년~2015년 자격증을 딸 기회가 생기며 숫자 개념이 부족하여 따기가 어렵다면 관련 자격증이라도 따서 준비하십시오. 지금 부동산을 보는 시각과 부동산 자격을 취득 후 부동산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 그때 다시 상담하십시오.

작게나마 내 사업하고 싶어요 돈 빌려 민폐 끼치지말고 자중

구리소망 남자 74년 2월 15일 양력

Q 자동차부품 관련 일을 했었는데 나이도 있고 취직하기가 힘듭니다. 작게나마 사업을 하는 건 어떨지요. 주변에서는 다 반대 입장이고 지금도 대출을 받거나 가족한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A 십악대패(十惡大敗) 사주라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고 가산을 탕진하여 대패한다는 흉사가 있습니다. 돈 좋고 사귀어 의화되어 이어서 뇌물할 징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에 올해 1월 인(寅)년생에 인(寅) 출생이지요. 인월(寅)에는 겁재라 하여 손실 을 사랑인 주변에 가득합니다. 누가 사업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생각인지요? 본인 생각이라면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는 것이고 주변에서 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일부터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군요. 대출받아서 식구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직업학교를 다녀 손재주 기술을 연마하십시오. 사주상 누그릇 만드는 기술을 권해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란 들어가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11월 16일 (음 10월 3일) 박청화 철학원 051)863-0305

쥐 84년생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해아려야. 72년생 타고난 뛰어난 재주를 잘 해낼 기회가. 60년생 가벼운 신중하게, 바뜻은 재롭고 과감하게. 48년생 불독 생활을 자제하고 몸화에 말써라.

소 85년생 손 발 바쁘게 움직인 만큼 속도 따를 듯. 73년생 노력에 따른 결실이 충분하할 듯. 61년생 나 형동에 따라 변화를 이끌어낼 듯. 49년생 재물은 상승하고 마음이 편해질 듯.

호랑이 86년생 실력 향상을 구하려면 앞선 자를 본받으라. 74년생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62년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없는 것을 얻을 듯. 50년생 활동 폭을 잘 조절할 것.

토끼 87년생 횡재운이 나타날 수도. 75년생 협력시 새로운 정보를 얻을 듯이. 63년생 당장의 소득은 없어도 결실을 향해 나아가는 흐름. 51년생 주변 변화에 따라 활신이 바쁜 하루가 될 듯.

용 88년생 의지대로 밀고 나가면 더 큰 힘이 발휘될 듯. 76년생 놓치기 쉬운 세세한 부분을 실수하지 않도록. 64년생 먼저 다가서서 포용하라. 52년생 갑자기 당황할 일이 생길지도.

뱀 89년생 변화를 향해 현결음을 내디딜 때. 77년생 잠설이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라. 65년생 인간관계가 확장되는 운세. 53년생 해오던 음식 활동을 짓고 새로운 방향으로.

말 78년생 꼭꼭 숨겨둔 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도. 66년생 본인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54년생 망신수가 있으니 외부에서의 미할을 주의해야. 42년생 자세를 낮추면 활력을 얻어낼 수 있을 듯.

양 79년생 탐험을 꿈꾸니 현 상황에 충실하라. 67년생 이익을 희생하면서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 55년생 뜻한 바의 현실의 왜곡으로 인한 갈등이. 43년생 되찾을 더 준비를 철해야.

원숭이 80년생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야. 68년생 소란한 곳에서 사람들과의 유대가. 56년생 힘든 이에게는 술을 뜨하는 하루가. 44년생 이리저리 재지 않고 저지르는 행동력이 요구된다.

닭 81년생 직업이나 일에 태만해지기 쉬우니. 69년생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움겨라. 57년생 단순한 허울을 입지 않도록. 45년생 양육을 중재하는 계층을 알게 될 듯.

개 82년생 털지 않고 다 터트릴 것. 70년생 지금은 실속을 생각할 시기. 58년생 스스로 비운 만큼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46년생 한 가지 해설을 통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듯.

돼지 83년생 주변 따라 순조로이 속도를 타면 결과는 원만. 71년생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59년생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움직이다. 47년생 해오던 일이나 생활에 변화가 생길 수도.

채선당

'여자의 욕심을 위한 채선당의 고집'

친환경야채
황동냄비

일반야채보다
비싸고, 관리기준도 까다롭지만
고객님의 건강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친환경야채를 채선당 직영농장, 지평영농, 한스영농, 운길산영농, 은성영농, 두레산골 등 전국 6개 친환경야채 인증 농장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채선당 전국 매장에 매일 공급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냄비보다
무겁고, 닦기도 힘들지만
고객님의 건강이
우리의 보람입니다!

황동냄비는 음식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고 식중독균 등 각종 독소를 제거해 줍니다 특수 주문 제작된 황동냄비는 전통적이고 고급스러운 모양과 황금빛 광채로 음식의 맛과 품격을 높여 드립니다

흉내 낼 수 없는 고집
채선당은 친환경야채와 황동냄비만을 고집합니다.

성공창업의 名家, 채선당에서 가맹점주님을 모십니다.

부산 사업설명회 | 2012년 11월 22일(목) 오후 4시 / 채선당 부산지사 교육센터

www.chaesundang.co.kr

채선당 QR코드

최대 창업자금 1억 2천만 원 대출 지원

가맹문의 | 1566-3800

'오리콘 협공' 2PM·카라 앞에 한명씩

싱글·앨범 일간차트 2위
카라 첫 도쿄돔 단독공연

K-팝 아이돌 남녀 대표주자 2PM과 카라가 오리콘 협공에 성공했다.

2PM은 14일 출시한 새 싱글 '마스커레이드'로 싱글 일간차트 2위에 올랐다. 하루 동안 8만8166장을 판매했으며 이는 김현중의 '히트'(13만6000장), 동방신기의 '앤드로이드'(9만8000장)에 이어 올해 한국 가수가 발표한 일본 싱글 중 세 번째로 높은 일일 판매 기록이다.

7월 닉쿤의 음주 운전사고 이후 활동을 중단했던 2PM은 이번 싱글로 컴백을 선언했고, 성공적인 활동 재개를 알리게 됐다. '마스커레이드'는 아라시, 스마프 등과 작업한 일본 유명 작곡가가 만든 댄스곡으로 금단의 사랑에 빠진 연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았다.

멤버들의 근육질 상체를 노출한 재킷 사진으로도 화제를 모았으며, 예약 주문이 시작되자마자 음반매장 체인인 타워레코드 예약차트 1위에 오르며 인기를 얻었다.

2PM

카라

카라는 같은 날 세 번째 정규앨범 '걸즈 포에버'와 첫 일본 투어 실황을 담은 DVD '퍼스트 재팬 투어 2012 카라시아'를 동시에 발표했다. 앨범은 하루 2만8721장에 팔려 일간차트 2위에 올랐으며, DVD는 판매량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종합차트 1위를 기록했다.

카라는 지난달 발표한 싱글 '일렉트릭 보이'로도 주간차트 2위에 오른 바 있으며, 연말을 넘어 내년 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런 여세를 몰아 내년 1월 6일에는 국내 여성 가수로는 최초로 도쿄돔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한다.

/유순호기자 sune@metroseoul.co.kr

강성훈 "내가 협박 당했다"

사기혐의 기소 입장 표명

사기혐의로 기소된 강성훈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표명했다.

15일 서울 신사동 용가빌딩에서 그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을 연 뒤 "젝스키스 멤버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고소한 오씨가 14일 공판에서 '강성훈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채업자 고씨를 증인으로 세우고 변제 의사를 재확인했다. 채무자 한모씨 협박 의혹에 대해서도 "협박당한 것은 오히려 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그는 오씨 등 3명에게 약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성동구치소에 수감됐으나, 9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전효성기자

'착한남자' 행복했던 시간

송중기 종영 소감 - 결국은 해피엔딩

KBS2 수목극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가 15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강마루(송중기)의 생사와 서은기(문채원), 한재희(박시연)와의 처절한 로맨스의 향방을 놓고 궁금증을 자아냈던 이 드라마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뇌 손상을 입고 죽어가던 강마루는 수술 후 목숨을 건졌고,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서은기와의 평범한 사랑을 시작했다.

이 작품은 방영 초반엔 제목을 '차긴 남자'로 명시해 한글 파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송중기·문채원 등 배우들의 열연과 미연하다 사랑한다' '미 죽일 놈의 사랑' 등 사랑의 비극을 그려내는 데 탁월한 이경희 작가의 필력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특히 복수를 펼치고 사랑을 이용하는 '나쁜 남자'로 변신한 송중기는 절제된 감정 연기를 펼쳤다는 호평을 받으며 MBC '해를 품은 달'의 김수현을 잇는 '대세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힘입어 각종 광고를 싹쓸이한 것은 물론, 주연한 영화 '늑대소년'까지 400만 관객을 넘었다.

송중기는 이날 "끝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너무 행복했고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종영 소감을 밝혔다.

/박진영기자 tak0427@

싸이, 빌보드 1위 멀어졌지만…

'강남스타일' 5위로 밀려 - 저스틴 비버 합류한 새 싱글 '기대만발'

싸이가 빌보드에서 5위로 밀려났지만 더 큰 희망을 키웠다.

7주간 미국 빌보드차트 '핫 100' 2위를 지킨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15일 발표한 24일자 차트에서 5위로 내려앉았다. 9주 연속 1위를 지킨 마룬파이브의 '원 모어 나이트'를 결국 넘지 못하고 처음으로 차트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빌보드차트에서 순위가 하락하기 시작한 곡이 다시 상승세를 타서 정상에 오르기는 어려운 만큼 1위 등극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러나 '원 모어 나이트'가 올해 싱글차트 최장 기간 1위 기록을 세운 만큼 이와 경쟁한 '강남스타일'은 충분히 1위의 가치를 지닌 곡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강남스타일'은 음원 판매를 집계한 디지털송 부문에서 1위를 지켰고, 유료 스트리밍에서는 지난주 1위에서 3위로 하락했다. 라디오 방송횟수 부문에서는 14위에서 22위로 큰 폭 하락했다.

싸이는 내년 2월이나 3월께 발표할 미국 시장 정식 데뷔 싱글로 빌보드 정상을 다시 노린다. 싸이의 새 싱글에는 팝 스타 저스틴 비버가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강남스타일'을 뛰어넘는 인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싸이는 빌보드 성적과 상관없이 13일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마돈나와의 합동 무대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빌보드닷컴은 물론 세계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홈페이지 뉴스, 파워 블로그인 페레즈 힐튼 등이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했다.

/유순호기자

장동건·김민종 아프리카서 '나눔의 품격'

SBS '신사의 품격'에서 호흡을 맞춘 장동건과 김민종이 아프리카에 '나눔의 품격'을 전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홍보대사인 장동건은 최근 김민종과 함께 WFP, 유엔난민기구(UNHCR) 및 유니세프(UNICEF)가 참여한 희망TV SBS 촬영 차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당시 두 사람은 수년간 계속된 내전과 폭력 사태로 인해 박해와 기아로 고통받는 현지 난민들과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 생활의 어려움을 들었다.

장동건은 "이거를 들일 젖이 나오지 않아 끼니로 나뭇잎을 뜯어 먹던 젊은 엄마 등이 상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면서 관심을 당부했다. 두 사람의 촬영분은 16일 방영된다.

/박진영기자

마술사 아닌 '환상술사' 꿈꾸는 이 남자

아트 접목 등 업그레이드 공연 선봬
저의 도전은 계속 될겁니다 쭈~욱

매직쇼 '더 일루션'으로 돌아온 이은결

마술사 이은결(31)이 더 환상적인 쇼로 돌아왔다. 서울 플루스퀘어에서 진행되고 있는 '더 일루션 이은결'은 지난 10년의 마술 인생을 정리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10년을 시작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진다. 15일 오후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이제 마술사가 아닌 최고의 환상술사를 꿈꾼다"는 당찬 말을 남기고 공연장으로 뛰어갔다.

 # 앙코르 무대 연일 매진

2010년 초연 후 올 2월에 이은 앙코르 무대로 연일 매진 행렬이다.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매직 디렉터 안 돈 웨인이 극찬한 '새도 매직' 미술뿐 아니라 아트를 접목시킨 신개념의 콘셉추얼 일루션, 카드와 순간 이동 마술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지난 10년간 '매직 콘서트'를 통해 화려한 마술의 정점을 보여줬던 그는 '더 일루션'에 대해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업그레이드한 마술이라고 강조했다.

"화려하고 재밌기만 한 공연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늘 있었어요. 관객은 점점 큰 스케일을 요구할 텐데 공연장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번 쇼는 '왜 마술을 할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에서 출발했죠."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환상이었다. "초능력은 실제로 없다. 미술사들이 한 것일 뿐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신비감이 남아있지 않다"면서 "그러니 환상은 남아있다. 관객의 상상을 동원하면 환상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환상을 만들기 위해 타 분야와 접목하는 시도를 했고, 자신의 틀을 깨고 세상 어디에도 없고 무엇이라고도 규정 지을 수 없는 퍼포먼스 공연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 "내 라이벌은 내 자신"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 마술대회에서 그랑프리를 거머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의 국제 마술대회에서 연이어 우승해 한국 마술의 위상을 높였고, 국내에 전무하던 대형 마술쇼를 개발해 블록버스터 매직쇼 시대를 열었다. 500회 이상 공연에 총 50만 관객 동원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 같은 성공의 배경에는 지금처럼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노력이 있었다. 남들과는 다른 새로운 레퍼토리를 개발하는 건 기본이고, 매 공연을 할 때마다 개선점을 찾아 바꾸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런 그에게 라이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한국 마술의 선구자로서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내년에 중국 공연을 계획하고 있고, 몇 년 뒤에는 국내에 상설 공연장을 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나아가 미국과 유럽에서도 공연하고 싶습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한제훈기자(온드림커뮤)

고경표, 윤시윤과 외모대결…승자는

'이웃집 꽃미남' 캐스팅

'SNL코리아'의 '귀요미' 고경표(사진)가 tvN 새 월화극 '이웃집 꽃미남'에서 윤시윤과 꽃미모 대결을 펼친다.

그는 이 작품에서 웹툰 작가 오진락(김지훈)의 어시스턴트로 눈지 백단 오지랖을 겸비한 오동훈 역을 맡는다. 동네 최고 미남 타이틀을 지키고자 엔리케 금(윤시윤)과 신경전을 벌이는 캐릭터로 두 사람의 외모 대결이 기대를 모은다.

고경표는 "오보이 프로젝트의 새 꽃미남 시리즈인 '이웃집 꽃미남'에 캐스팅됐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흥분되고 설렌다"면서 "특히 특풍 '간지'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섬세한 내면을 지닌 오동훈 캐릭터의 반전 매력에 끌렸다"고 출연 배경을 전했다.

은둔생활을 하던 고독미(박신혜)가 앞집 남자를 몰래 훔쳐보다 엔리케 금에게 발각되면서 펼쳐지는 로맨스를 담은 16부작 로맨틱 코미디로 인기 웹툰 '나는 매일 그를 훔쳐본다'를 원작으로 했다. 내년 1월 7일 첫 방송.

/전효순기자

'제2의 윤미래' 손승연 랩·노래 듣자

'경고' 음원사이트 공개 화제

엠넷 '보이스 코리아'의 우승자 손승연(사진)이 '제2의 윤미래'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데뷔 앨범 '미운 오리의 날개짓'을 발매한 그는 한 자동차 광고에 자신이 부른 타시니의 '경고'를 15일 음원 사이트에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윤미래가 몸담았던 여성 듀오 타샤니의 곡인 '경고'는 펑키하면서도 그루브한 리듬과 고음이 함께 섞여 있는 곡으로 수준 높은 랩과 노래로 구성된다. 손승연은 혼자서 랩과 가창을 해냈다.

소속사 관계자는 "2명의 타샤니 멤버의 곡을 혼자서 능숙하게 소화하며 신인이라고 믿을 수 없는 노련함을 보였다. 곡을 자유자재로 즐기며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듣는 이들을 압도한다"고 말했다.

이번 곡이 화제가 되자 인터넷에는 고등학교 시절 '경고'를 부른 동영상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손승연은 지난해 말 미국 버클리음대 장학생으로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가수 활동을 위해 입학을 미뤄오고 있으며 새 앨범 알리기에 한창이다.

/정승훈기자 sunei@

'학교 2013' 출연진 '교복 고사' 다음달 3일 첫방송

KBS2 새 월화극 '학교 2013'가 100여 명의 스태프와 함께한 교복 고사로 방송 준비를 마쳤다.

14일 경기도 안성 세트장에서 치러진 고사에는 학교를 배경으로 한 청춘 드라마답게 교복을 입은 배우들이 직접 참석해 막걸리 술잔을 돌리는 이색 광경이 펼쳐졌다.

학생 대표로 마이크를 잡은 남순 역의 이종석은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촬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희는 선배님들을 잘 믿고 따라갈 테니 더 함께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모범생다운 소감을 전했다.

드라마 관계자는 "이종석과 박세영, 김우빈을 비롯한 학생 연기자들과 스태프들이 '대박'의 염원을 담아 절을 올리는 장면 자체가 여느 드라마 고사장과는 다른 이색적인 풍경이었다"고 전했다.

10년 만에 부활한 학교 시리즈로 화제를 모은 이 작품은 다음 달 3일 KBS2 '울랄라 부부' 후속으로 방송된다.

/전효순기자 kwan@

What's New Christmas

크리스마스가 빠름~ 빠름~

조말론 향수 컬렉션 9종

조말론 런던이 크리스마스 컬렉션 한정판을 23일 출시한다. 라임 바질 앤 만다린 향으로 구성한 '라임 바질 앤 만다린 컬렉션'과 대표 제품을 모은 '월드 오브 조말론 컬렉션' 등 총 9종. 가격은 6만~100만원대.

안나수이의 '색조 파우치'

안나수이가 크리스마스 컬렉션을 선보였다. 진주펄로 은은한 빛을 선사하는 아이섀도, 핑크빛 치크 컬러, 촉촉한 립글로스 등으로 구성한 색조 메이크업 파우치 세트로 가격은 7만1000원.

10월에 트리 세우고 11월에 성탄메뉴 출시
불황속 '롱텀 특수' 위해 연말마케팅 앞당겨

본격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당기고 있다. 이미 한 달 전 이마트 매장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했고, 이후 서울 시내 백화점과 거리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히고 있다. 예년보다 보름에서 한 달가량 빠른 등장이다. 유통업계는 "경기 부진에 허덕이는 만큼 연말 특수를 오래 끌어가기 위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서둘러 띄우려는 업체들이 많아졌다"고 풀이하고 있다.

미리 크리스마스를 가장 반기고 있는 곳은 백화점·쇼핑몰과 커피전문점들이다. 주요 백화점들은 외관과 내부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로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채고 있다. 이달 초 AK플라자 분당점에 들어선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는 높이가 18m로 아래쪽을 열린 공간 형태로 제작해 팝업스토어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이 퍼질 수 있게 포토존 형식으로 꾸며놓기도 한다.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의 경우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루돌프 사슴, 미치 등의 조형물을 함께 설치해 고객들이 맘껏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했다. 신세계사이먼의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도 최근 야외 공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반짝 불을 밝혔다.

◆ 가을에 맛보는 겨울의 맛 가득

커피전문점에선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맛볼 수 있는 한정 음료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스타벅스커피는 구수한 견과류 맛이 나는 '토피넛 라떼'와 상큼한 '페퍼민트 모카' 등 크리스마스 음료 6종을 연말까지만 판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블렌드 원두 기 올해도 출시됐다.

디저트 카페 투썸 또한 '토피넛 라떼'를 크리스마스 한정 음료로 내놨다. 진한 초코 시럽에 에스프레소를 담아 달콤한 '카페 모카치노'도 선보인다. 파스쿠찌는 달콤한 마카롱 시럽과 어우러진 라떼에 쫄기 생크림을 얹은 '스트로베리 마카롱 모카'를 크리스마스 커피로 내세웠다.

다이어리와 머그 등 크리스마스 한정판 제품도 함께 판다. 투썸은 '런던으로 떠나는 크리스마스 여행'을 콘셉트로 디자인한 머그 2종을, 파스쿠찌는 커피 쿠폰 등을 담은 플래너와 북유럽 스타일의 머그와 텀블러를 내놨다.

카페베네는 빈티지 디자인을 입힌 다이어리를 출시했고, 할리스커피는 캘리그래피 작가 눈뭉의 그림과 손글씨가 새겨져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와 머그컵을 한정 상품으로 준비했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인성아, 고민말고 둘다 먹어!

아웃백 겨울메뉴 '치즈 랍스터&석류 스테이크'

스테이크 or 랍스터?

낭만적인 연말에 한껏 분위기를 내고 싶은 날, 스테이크와 랍스터 중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통째 찐 제철 랍스터와 스테이크의 풍미를 돋우는 석류소스가 어우러진 겨울 한정메뉴 '치즈 랍스터&석류 스테이크'를 내놨다.

'치즈 랍스터&석류 스테이크'는 새우, 관자 등 해산물로 속을 꽉 채운 다음 치즈를 녹아내리는 치즈를 올린 랍스터 테르미도르 요리와 갓 딴 석류로 만든 붉은 소스에 살짝 찍어 더욱 맛있는 서로인 스테이크의 조화가 돋보이는 메뉴다.

기호에 따라 한국적인 갈비소스로 양념한 너비아니 또는 부드러운 어린 돼지 갈비 바비큐 요리를 고를 수 있다. 세 가지 메인 메뉴에는 랍스터 테르미도르를 추가로 주문할 수 있다.

본연 어니라 아웃백의 정통 페투치니 파스타, 치킨&쉬림프 카르보나라와 파인애플, 체리 토마토 등의 신선한 과일과 야채, 그릴에서 구워낸 닭가슴살, 바삭한 새우가 함께 제공되는 건강 샐러드 '그릴드 머쉬룸&씨푸드 샐러드'도 겨울 한정메뉴로 맛볼 수 있다.

아웃백 겨울 한정메뉴 '치즈 랍스터&석류 스테이크' 세트 메뉴는 커플 메뉴(2명), 패밀리 메뉴 A, B(3명), 파티 메뉴(4명)로 구성됐다. 코임 에이드, 디저트, 커피 등과 함께 풀코스로 즐길 수 있다.

◆ 인성이가 먹여주는 스테이크? 광수가 먹여주는 랍스터?

흰 눈이 펑펑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배우 조인성이 꽁꽁 언 손을 녹여주고, 치즈가 눈처럼 내린 랍스터와 붉은 석류소스에 푹 찍은 스테이크를 먹여준다면? 아웃백의 겨울 한정메뉴를 알리는 새 광고 '치즈 랍스터&석류 스테이크' 편에서는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반전도 숨어있다. 최근 '대세남'으로 떠오른 이광수도 누군가에게 랍스터를 먹여주며 코믹함을 선사한다. /현호순기자

◆ 석류 스테이크를 더욱 맛있게 먹는 비법!

- 풍부한 육즙을 느끼려면 스테이크를 잘게 썰어 놓지 않기
- 스테이크 풍미를 더욱 진하게 느끼려면 레드와인과 함께
- 스테이크를 썰라 상큼한 석류소스에 콕 찍어 먹기

디블로도 반한 비엘타 '카이만 백'

큐레이션 커머스 입점

가죽 가방 브랜드 비엘타가 큐레이션 커머스 '디블로'에 입점한다.

디블로는 라이프스타일 전문가들이 최신 트렌드 상품을 추천하는 사이트로, 해외 유명 브랜드부터 신진 디자이너 제품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비엘타는 그동안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서만 제품을 판매해왔다.

비엘타가 디블로에 첫선을 보인 제품은 '카이만 러키 백'과 '카이만 피노 백'. 최고급 악어 가죽의 독특한 질감과 색상을 그대로 살려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특별한 장식 없이 깔끔한 디자인으로 미니멀룩에 잘 어울린다. 문의 www.dblow.com

전미정 日여자골프 상금왕 생애 첫 영광…한국 3연패

전미정(30)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생애 첫 상금왕을 차지했다.

일본 언론은 15일 상금 순위 3위인 안선주가 손목 통증 때문에 시즌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리코컵 출전을 포기하면서 전미정이 상금왕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JLPGA 투어에서는 2010~2011년 안선주에 이어 3년 연속 한국 선수가 상금왕에 올랐다.

전미정은 지난주 이토엔 레이디스까지 올해 28개 대회에서 상금 1억2390만 엔(약 16억7893만원)을 벌어 이리무라 치에(1억188만 엔)와 안선주(1억120만 엔)에 앞서 있었다. /김민준기자

임창용 야쿠르트서 퇴단

'야쿠르트 수호신' 임창용(36)이 끝내 팀을 떠난다.

일본 언론은 1일 야쿠르트가 임창용의 방출을 공식 [illegible] 보도했다. 스포니치는 야쿠르트가 임창용의 3억6000만 엔(약 49억원)에 달하는 높은 연봉과 수술받은 오른쪽 팔꿈치가 내년 7월 이후에나 완치될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껴 방출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우즈베크 '거함' 이란 격파

브라질월드컵 예선 한국 제치고 A조 선두…일본 본선행 확정적

이란을 꺾은 우즈베키스탄이 2014 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에서 선두로 올라섰다.

우즈베키스탄은 15일 오전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 A조 5차전에서 후반 26분 터진 울르그벡 바카예프의 선제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 이란을 1-0으로 꺾었다.

이란 원정에서 값진 1승을 챙긴 우즈베키스탄(2승2무1패·승점 8)은 한국을 제치고 단숨에 A조 1위로 뛰어올랐다. 아직 1경기를 덜 치른 한국(2승1무1패·승점 7)은 골득실(한국 +5, 이란 0, 카타르 -2)에서 앞섰을 뿐 이란과 카타르(이상 2승1무2패) 역시 승점 7점을 기록하고 있어 A조의 선두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날 A조 카타르도 레바논을 홈으로 불러들여 안드레스 퀸타나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했다.

B조에서는 일본이 오만을 꺾고 월드컵 본선행을 거의 확정했다.

일본은 오만 원정에서 1-1로 팽팽히 맞서던 후반 44분 오카자키 신지의 극적인 결승골로 2-1 승리를 챙겼다. 오만전 승리로 일본(4승1무 승점 13)은 B조 선두자리를 굳건히 하며 2위 호주(1승2무1패·승점 5)와의 승점 차를 8점으로 벌렸다. 남은 3경기(요르단·호주·이라크전)에서 승점 2점만 챙기면 자력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다.

아쉽게 경기에서 패한 오만(1승2무2패·승점 5)은 호주·이라크와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호주 0, 이라크 -1, 오만 -3)에서 밀려 조 4위로 내려앉았다. 이라크는 요르단전에서 후반 41분 함마디 아흐메드의 결승골이 터져 1-0 신승을 거뒀다.

/조한울기자 mlkun@metroseoul.co.kr

◆ 브라질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순위

A조

순위	승	무	패	골득실	승점
1 우즈베크	2	2	1	1	8
2 한국	2	1	1	5	7
3 이란	2	1	2	0	7
4 카타르	2	1	2	-2	7
5 레바논	1	1	3	-4	4

B조

순위	승	무	패	골득실	승점
1 일본	4	1	0	11	13
2 호주	1	2	1	0	5
3 이라크	1	2	2	-1	5
4 오만	1	2	2	-3	5
5 요르단	1	1	3	-7	4

김원섭·유동훈 KIA 남는다

3년 14억·2년 7억5천 FA 계약

KIA에서 FA(자유계약)자격을 얻은 김원섭(34)과 유동훈(35)이 팀 잔류를 선택했다.

KIA는 15일 김원섭과 계약 기간 3년에 계약금 5억원, 연봉 3억원 등 총 14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유동훈과는 계약 기간 2년에 계약금 3억원, 연봉 2억2500만원 등 7억5000만원에 계약했다.

2001년 두산에 입단한 김원섭은 2003년 KIA로 트레이드 된 올 시즌 프로 데뷔 후 가장 많은 120경기에 출장해 타율 0.303, 61타점 60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1999년 입단한 유동훈은 올 시즌 43경기에 등판해 1승 6세이브 5홀드 방어율 5.29으로 부진했다. 하지만 그는 2009년 팀의 마무리를 맡아 한국시리즈 통산 10번째 우승을 이끄는 등 통산 416경기에 나서 35승26패 59세이브 34홀드 방어율 3.99를 기록하며 불펜의 핵심 역할을 했다.

이들은 "KIA에서 더 뛸 수 있어 행복하다"며 "내년 우승으로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민준기자

유동훈　김원섭

"메시 잡아라"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리오넬 메시(오른쪽)가 15일 열린 사우디와의 친선전에서 사우디 선수 3~4명을 제치고 드리블하고 있다. 이날 아르헨티나는 공격을 주도하고도 사우디 골망을 열지 못해 득점 없이 비겼다. /AP 뉴시스

서울, 울산 꺾고 리그 선두 질주

'K리그 선두' FC서울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울산현대와의 맞대결에서 웃었다.

서울은 1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2 39라운드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전반전에 터진 에스쿠데로와 데얀, 몰리나의 연속골에 힘입어 3-1 완승을 거뒀다. 값진 1승을 추가한 서울(25승9무5패·승점 84)은 리그 5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2위 전북현대(22승11무6패·승점 77)와의 승점차를 7점으로 벌리며 우승권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서울의 '데몰리션 콤비'는 이날 K리그의 역사를 새로 썼다. 데얀의 선제골을 도운 몰리나는 16년 만에 K리그 통산 한 시즌 최다 도움 기록을 17개로 갈아치웠다. 종전 기록은 라데(전 포항·1996년)가 지니고 있었던 16개였다.

K리그 최고의 골잡이 데얀은 시즌 28호골을 터뜨리며 K리그 통산 외국인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기존 마그노, 도도 27득점·2003년)과 한 시즌 최다 득점 타이 기록(기존 김도훈 28득점·2003년)을 동시에 세웠다.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최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0 What's the date today? 날짜와 장소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en.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 1에서 제공드립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136. 오늘이 며칠이에요?
137. 오늘은 11월 1일이에요.
138. 당신은 언제 태어났어요?
139. 저는 1967년 11월 1일에 태어났어요.
140.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136 What's the date today?
137 Today is November 1st.
138 When were you born?
139 I was born on November 1st, 1987
140 Today is my birthday.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136~140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Good morning, John. What's the 날짜 today?[136]
B Today is November 1st

정답 date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Today is November [1st / 16th]

2 [I / He] was born on [April 29th, 1988 / July 2nd, 1968]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The owner of Pergini Builders estimates that the construction in downtown Erlton will take _______ eighteen months to complete.
(A) approximately (B) slowly
(C) eagerly (D) spaciously

02 Keymon restaurants can be _______ in a wide variety of locations from urban centers to coastal towns.
(A) finding (B) found
(C) having found (D) find

01. 페르지니 건설사 소유주는 엘튼 시내의 건축 공사가 완료되는 데 대략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설 '대략 18개월'이 적합하므로 (A) approximately가 정답이며, about, around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어휘 estimate 추정하다 eagerly 열망하여 spaciously 넓게
정답 (A) approximately

02 케이몬 식당들은 도심에서 해안 마을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장소에서 볼 수 있다.
해설 be동사 뒤에 동사가 올 때는 -ing나 과거분사가 와야 하는데, 의미상 수동의 의미를 띠는 과거분사형 (B) found를 쓴다.
어휘 a wide variety of 아주 다양한 urban 도시의, 도회지의 coastal 해안(연안)의
정답 (B) found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1 문장 읽기

발음에 유의하여 읽기

익숙한 지명이나 나라명이 원어와 발음으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강세 및 발음법을 반드시 확인하여 영어식 발음을 익혀야 합니다.

• 지명

Manhattan	맨하탄 (X) 맨해튼 (O)	New York	뉴욕 (X) 뉴(이)요크 (O)
Athens	아테네 (X) 애썬스 (O)	Asia	아시아 (X) 에이지아 (O)
Chile	칠레 (X) 칠리 (O)	Peru	페루 (X) 퍼루 (O)
Rome	로마 (X) 로움 (O)	Argentina	아르헨티나 (X) 아아젠티나 (O)

• 도로명

St. Anthony St.	Saint Anthony Street	6th Ave.	sixth Avenue
Kelington Blvd.	Kelington Boulevard	Riverview Ln.	Riverview Lane

• 인터넷 및 이메일 주소

www.English.com	double u double u double u dot English dot com
shawn110@mail.com	shawn one ten at mail dot com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ybmbooks.com 02)2000-0515

www.dit.ac.kr

이 숫자를 기억하면
여러분도 기부천사가 됩니다

6,623,000,000원

동의과학대학교가 2012년 전문대학종합평가에서 부산·경남권역 1위를 하여 받은 정부 지원금입니다.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동의과학대학교 홈페이지(www.dit.ac.kr)와
모바일이벤트 페이지에 접속(QR코드 이용)해
퀴즈에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행복을 드립니다.

찍으세요!

(퀴즈 : 동의과학대학교가 정부로 부터 받은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1. 당첨자 명의로 어려운 이웃에게 쌀 1포대(20kg) 기부 : 100명
2. 당첨자 직장 혹은 학교에 응원의 간식으로 피자 증정 : 100명

※기간 : 2012. 11. 12 ~12. 15 / 당첨자는 12월 20일 우리 대학 홈페이지와 신문을 통해 발표합니다.

2013학년도 수시 2차 모집안내
접수기간 : 2012. 11. 12(월)~11. 21(수)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진학 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 정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DIT 동의과학대학교
DONG EUI INSTITUTE OF TECHNOLOGY